

# VOGUE girl

JUNE 2009  
www.voguegirl.com  
정가 5,500원

## REAL minho

이민호, 가장 사적인 인터뷰



### PERFECT SWIMSUITS

컷아웃, 레트로, 글래머러스...  
수영복 트렌드 &  
체형별 쇼핑 시크릿

### SUPER GORGEOUS

여드름 비포 & 애프터 케어의 모든 것  
서머 메이크업 롱 래스팅 비법  
여름을 정복하는 다이어트 룰 7

# SEXYY BEACH BODY

책속부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들을 섹시한 해변의 여신으로 변신시켜 줄  
<보그 걸>의 비치 보디 프로젝트

special  
event

## VOGUE GIRL CAMPUS EDITOR

<보그 걸> 캠퍼스 이슈를 책임질  
대학생 에디터를 모집합니다!

ISSN 1599-4945



9 771599 494006





164

todd selby

패션 블런더 'Style Blogger'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준, 흥미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창조적인 공간을 페인팅, 일러스트, 비디오로 소개하는 웹 매거진 <셀비(The Selby)>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다. 10년 전 나는 <플레이보이> 웹사이트를 훑쳐봤고, 현재는 미국의 브루클린과 맨해튼, LA를 비롯해 런던과 파리, 멕시코, 시드니 등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환상적인 공간들을 포착해내고 있으며, 10년 후의 나는 최초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내 모습을 셀비에 올리고 있을 것이다. 내 모든 영감은 웹사이트 셀비(www.theselby.com) 안에 있고, 매 순간 더 많은 셀비를 찾기 위해 고민한다.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코브라스네이크(www.thecobrasnake.com)의 마크 헌터.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그것을 전 세계 패션 피플들과 공유할 줄 아는 멀티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도쿄. 그곳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아니 상상 그 이상의 것으로 가득하며, 심지어 미래의 모습까지 있다. 올 여름 나의 최대 숙제는 지금 집필하고 있는 내 책을 끝마치는 것. 내년 4월이면 당신도 내 책을 품에 안고 그 안에 담긴 살아 숨쉬는 내용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엔 할 수 없다. 매일 매일 정신을 집중해 고된 일을 해야 한다.

- 셀비의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 ▲ 목에 힘을 주고 으스스하며 다닐 수 있다는 것



276

hong yeon

'꽃보다 남자' 종영 후 훨씬 더 바빠진 잇걸, 이민정을 스타일링해준 스타일리스트.

나를 표현하는 말 중 요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아하다. 부드럽다. B형 같다(난 A형)'. 부쩍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소녀처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일링 말고도 내가 정말 잘 한다고 자부하는 것들은 뜨개질.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물건 고르기, 길 찾기, 주차, 성격 맞추기, 인테리어 등등. 6월은 쉬는 날이 없는 더운 달. 스타일리스트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것은 역시 사이즈.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색상의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티파니 조명, 빈티지 클럽 চে어, 살롯 페리앙 가구들, 삼청공원 계곡, 줄리안 오피, 카를라 부르니, 자동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우터바스의 사진, 뜨개질로 만든 아크릴 수세미.

- 올 여름에 반드시 갖춰야 할 마스트 해브 아이템 세 가지는?
- ▲ 파리행 비행기표, 에르메스 향수. 두 가지밖에 생각 안 하는데...



242

c juhee

런던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 'Real Minho'를 위해 의상부터 촬영 로케이션까지 꼼꼼히 섭외해준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보그 걸> 런던 통신원 그리고 <20인 런던>의 저자이자 따뜻한 여름을 기다리는 4년차 런던러.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장 그리운 한국의 것은 바로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냉면과 팔링수.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나에게도 향수병을 일으키는 음식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스턴트 비빔면과 아이스 커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도시 런던에 살며 가장 많이 배운 것은 폭넓은 사고 방식과 이해심. 그래서일까? 런던 스트리트 패션을 보면 그 어떤 도시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날 수 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 집필 중인 런던에 관한 책을 마무리 짓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도시에서도 살고 싶다. 그 첫 번째 도시는 베를린. 친한 친구 아파트에서 3주간 머물며 여름 휴가를 겸해 베를린을 느끼고 올 예정이다.

- 존경하는 패션 피플은?
- ▲ 영국 <데이즈드 앤 컨큐즈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일본 <보그 웬즈>의 패션 디렉터인 니콜라 폼미체티(Nicola Formichetti), 일본과 이탈리아 혼혈인 니콜라는 동서양, 모던과 전통적인 스타일을 유니크한 자신만의 스타일링으로 재해석하는 스타일리스트다.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작업을 하는 그와 같은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



282

hwang ji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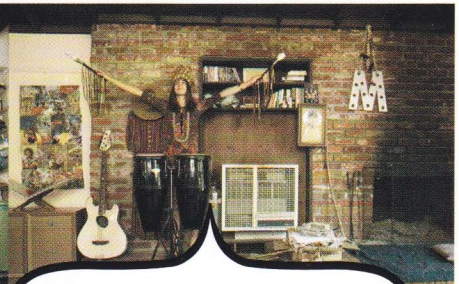
패션 화보 'Nostalgic Beach'의 내추럴한 헤어를 연출한 헤어 스타일리스트.

나 자신을 규정하는 세 가지 단어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채수훈의 아내, 아줌마, 아물딱짜다. 요즘 내 흥미를 끄는 최대 관심사는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무척 어렵다. 남편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 좋은 점은 잘 안 풀리는 일에 대해 뼈아프고 살이 되는 조언과 격려를 주고받는 것. 하지만 그만큼 내 생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 관계나 일에 대해선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작년 다녀온 몰디브. 아름다운 자연과 근사한 리조트에서 즐겼던 웰빙 라이프가 그림다. 출장 때문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되는데, 복잡한 도시보다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휴양지가 더 좋다. 최근 내 물욕을 자극하는 것은 40대에 갖기 위해 노력 중인 에르메스 버킨 백.

- 여행지에서 곁들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링 팁이 있다면?
- ▲ 머리가 길다면 두꺼운 헤드밴드를 매치해 에스닉하게 연출하거나 왁스를 발라 깔끔한 포니테일을 완성하는 것이 좋다. 짧은 머리는 챙이 넓은 슬라우치 햇을 이용할 것.



# blogger



## the selby is in your place

멀티 플레이어 에린 와슨의 뉴욕 하우스,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사는 피치스 겔도프의 브루클린 집, 뮤지션 디버와 롤라의 집, 배우 크리스틴 리타와 패션 디자이너 오비디언트 손츠의 하우스는 물론이고 그래픽 아티스트, DJ, 플리마켓 오퍼 등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잇 피플들의 리얼 라이프를 볼 수 있다면? 클릭 한 번이면 찾아갈 수 있는 인테리어 웹 매거진 '셀비 (www.theselby.com)'가 그 주인공이다. 셀비는 티후아나에서 관광 가이드, 캘리포니아 딸기 산업의 자료 조사, 코스타리카의 지도 개발자, 멕시코에서 정치 외교 컨설턴트, 아트 디렉터, 꽃 판매업자 등의 이력을 거친 토드 셀비(Todd Selby)에 의해 탄생된 사이트로, 그는 현재 뉴욕에서 살며 그림을 그리고 근육 생성을 위한 우유를 마시거나 아이팟을 사거나 컴퓨터를 부수며 자신의 이메일과 아이폰을 체크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평범한 사람이길 자처한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흥미로운 패션 피플들의 창조적인 공간을 찾아 사진을 찍고 그들의 인터뷰를 일러스트로 올린 셀비는 곧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잇 매거진으로 떠올랐다(지난 4월에는 콜레트와 함께 자신의 일러스트가 그려진 아이템을 판매하는 '셀비 스토어'를 론칭했을 정도). 그는 사이트의 확장판인 <The Selby is in Your Place>란 책을 내년 4월 한국에서도 출판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보그 걸> 독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난 한국에 있는 멋진 패션 피플들의 집도 찍고 싶으니 만약 환상적인 공간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내게 이메일 주세요요" **에디터: 이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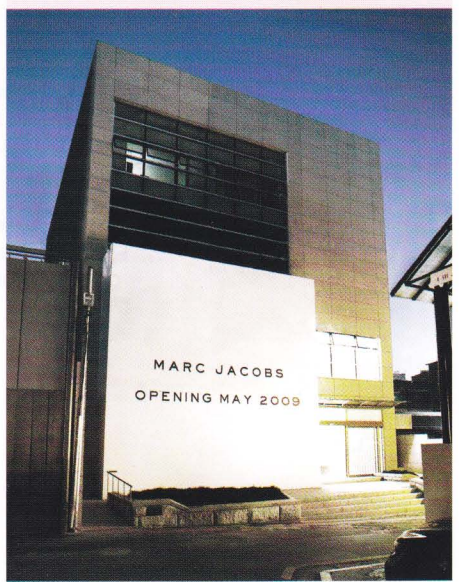


## who wore it better?

**CHLOE'S SCALLOP SHORTS** SIENNA MILLER VS. KATE BOSWORTH 런던의 그로우초 클럽에서 시간을 보낸 시에나 밀러는 블랙 톱에 클로에의 크림색 재킷과 스칼롭 커팅 쇼츠, 그리고 블랙 타이츠와 부츠를 매치해 세련된 딥 록을 표현한 반면, 케이트 보스워스는 페일 컬러 티셔츠에 클로에의 쇼츠와 블레이저를 매치한 뒤 글래디에이터 힐을 스타일링해 전체적으로 크리미하게 연출했다. **ALEXANDER WANG'S MOTORCYCLE JACKET** LINDSAY LOHAN VS. RIHANNA 블루 스웨이드와 블랙 가죽이 믹스된 알렉산더 왕의 재킷에 블랙 롱 지지 티셔츠를 매치한 뒤 라이딩 부츠를 더해 심플한 스타일을 완성한 린제이 로한과 화이트 탱크 톱에 알렉산더 왕의 가죽 블루중과 시티즌 오브 휴머니티의 디스트로이드 스키니 진, 그리고 발맹의 크리스털 샌들로 예지 있는 스타일을 표현한 리한나의 님은 듯 다른 느낌. **MATTHEW WILLIAMSON FOR H&M DRESS** MISCHA BARTON VS. NICKY HILTON 매튜 윌리엄슨이 디자인한 에이치앤엠의 타조 깃털 프린트 미니 드레스를 입은 미샤 바튼과 니키 힐튼, 미샤 바튼은 민트색 선글라스와 핫 핑크색 핏토 샌들로 걸리시하게 연출했고, 니키 힐튼은 주세페 자노티의 메탈릭 힐로 페미닌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에디터: 이혜민**

## MARC'S POINT

5월 28일, 새로운 패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도산공원 라인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더해진다. 바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오픈하는 마크 제이콥스 '프리 스탠딩 스토어'. 흥미로운 점은 마크 제이콥스가 자신의 스토어 자리로 도산공원 일대를 지목했다는 것. 심플한 블랙 앤 화이트를 컨셉트로 그의 시그니처 컬렉션으로 채워질 이 스토어는 벌써부터 트렌디한 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스폿으로 꼽히고 있다.



COURTESY OF TODD SELBY; MARC JACOBS